



## 보도자료

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 
〈상임위원장 우원식/공동위원장 위성곤, 여기구, 유동수 / 간사 양이원영〉

2023. 10. 31(화)

수신: 각 언론사 정치,외교,원전,환경담당기자(산업부,외교부,환경부,과기부,해수부 등)

문의: 우원식의원실(서영준 선임비서관 010-6427-9787)

총분량: 2쪽

[기자회견문]

### **도쿄전력 한국지사로 전략한 국무조정실 일일브리핑,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맹목적인 일본 옹호가 아닌 국민안전입니다.**

국민안전은 뒷전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.

30일,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(ALPS) 배관 청소 작업 중 5명의 작업자에게 세정수가 비산된 사고를 언급하며 '노출된 액체는 오염수가 아닌 세정수이며 양도 생수병 한 병 반 정도 되는 양'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, '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'고 주장했습니다.

가히 도쿄전력 한국지사로 전략한 국무조정실을 보는 듯 합니다. 이태원 참사, 오송 지하철도 참사에서 보여주었던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

이번 사고의 가장 큰 핵심은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.

사고로 피폭된 작업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입니다. 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(ALPS)의 관리가 하청업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, 작업자

는 작업기준에 따라 방호복 위에 방수복을 입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일본 현 지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세정수에 피폭된 작업자의 외부노출량은 일반인 기준 연간 피폭선량 한계치인 1mSV의 6배가 넘는 6.6mSv가 측정되었습니다.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정수의 방사능 수치는 무려 43억7600Bq/l에 달한다고 합니다. 오염수도 아닌 세정수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오염도가 얼마나 높은 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.

도쿄전력은 그동안 알프스 필터 파손사실을 숨기는 등 수많은 은폐 조작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처음에는 100ml 정도의 미미한 세정수가 비산되었다고 밝혔지만 현지기자의 추궁에 이를 수정해서 밝혔습니다.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행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이와 같이 이번 사고는 사고원전 핵심시설의 관리부실, 오염수의 위험성, 도쿄전력의 은폐·조작 의혹 등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고입니다.

이러한 상식적인 문제지적에도 호들갑을 떨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, 안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.

윤석열 정부는 구차한 일본 옹호, 일본 변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. 국민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 기본적인 상식마저 저버린다면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.

2023.10.31.

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